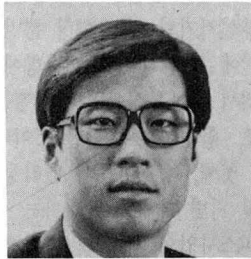


관련산업발전의 길잡이로서의 역할 기대

鄭 夢 憲

(주)현대전자산업 사장



먼저 「정보화사회」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도정보화의 핵심요체인 정보통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산업의 중추인 기업의 정보육구에 부응, 협회의 설립목적인 전산망사업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산업발전의 길잡이로서 창간된 협회지 「정보화사회」는 지난 1년동안 협회의 사업추진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전산망과 정보통신의 새로운 기술 및 산업 동향, 당국의 정책, 관련법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소개하는 한편, 관·학·산·연계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논평과 제언을 통하여 본래의 창간취지인 「산업발전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이미 고도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미·일 등 선진제국의 산업발전현황과 비교해 볼 때,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부족하리라 사료된다. 정보의 가치가 물질이나 에너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변화에 따른 국민적 인식의 바탕(정보문화)위에서 정보이용의 대형화를 촉진하는 것이 정보화 사회로 가는 성공적 요인으로 전제한다면, 단순한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보화사회로 가는 사회적 장애요인 등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는 산적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보통신산업분야는 우리나라 초창기 또는 도입기에 주어졌던 제도적 육성지원 환경이 동분야에 그대로 주어질 수 없는 여건이며, 이에 대한 업계의 국제적 대응 감각이 정립되어야 할 시기이다. 한편 2천년대 수출상품모색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움 등 금년에는 어느 때보다 정보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이벤트들이 줄을 이어 관련업계의 활력과 함께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사회에 대한 마인드확산 노력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각종 전시회 및 정부의 시범사업 등의 지방으로의 정보문화확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문화의 확산 및 정보문화사회 가속을 위하여, 그리고 관련산업발전의 길잡이로서 「정보화사회」의 창의적 노력과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보통신산업분야는 우리나라 초창기 또는 도입기에 주어졌던 제도적 육성지원 환경이 동분야에 그대로 주어질 수 없는 여건이며, 이에 대한 업계의 국제적 대응 감각이 정립되어야 할 시기이다.